

世界最初の 原油先物市場이 美国에서 생긴다.

美国에서 내년 봄에 세계 최초의 原油先物去來市場이 開設될 것이다.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이 先物市場은 시카고와 뉴욕에서 동시에 開設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美国政府的 認可를 얻을 전망이다. 先物市場에서는 1千배럴 정도의 소규모거래가 중심이 될 것이지만, 美国産原油 뿐만 아니고 中南美原油와 아프리카産原油도 거래되어 앞으로는 50万 배럴에서 100万 배럴규모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輕油등 일부 石油製品의 先物市場은 소규모이면서도 이미 런던, 뉴욕에 설치되어 있지만, 原油에는 1개월 이내를 기간으로 하는 現物市場이 로테르담, 싱가포르, 뉴욕의 3개소에 형성되어 있을 뿐으로 5~9개월의 先物原油의 去來市場의 설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兩市場이 原油의 先物價格指標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 国内外的 石油關係者가 그 動向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原油先物去來市場의 설치에 대해서는 美国内에서도 아직 贊反兩論이 있는데 大石油会社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仲介業者와 小売業者는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 政府에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들 仲介業者들이다.

石油会社가 開設에 소극적인 것은 先物市場이 1千배럴의 소규모 去來를 주로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 經濟情勢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價格의 變動幅이 필요이상으로 크다는 것과 자유롭게 선택가능한 原油의 종류가 어느 정도로 될 것인가, 또 去來成立후의 일정기간에 原油를 先渡하는 포드딜리버리스시스템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金融上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것인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는데 이는 先物原油가 곡물등과 같이 投機의 대상으로 될 것을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構想으로는 시카고가 輕質原油, 뉴욕이 中·重質原油를 중점적으로 취급할 것이다. 시카고에서는 美国産의 루이지애나 라이트를 기본原油로, 南루이지애나지역에서 생산하는 原油와 보니아이트, 브라스리버, 쿠아이보이 등의 나이지리아産原油, 노르웨이의 에코퀴스크原油, 사하라·브랜드, 사루자이틴 등의 알제리産 原油를, 그리고 뉴욕에서는 重質油의 웨스트·텍사스, 사와, 中質油의 인터메이트를 基本原油로 産地制限은 없다. 1千배럴을 계약단위로, 어느 정도의 가격조정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것은 아직 검토중으로 불투명한 점도 많지만, 이미 4年前에 부활한 뉴욕의 暖房用, 工業燃料用的 輕油를 주로 하는 商品去來所와 작년 4月 6일에 開設된 런던의 국제石油去來所(IEP)의 거래형태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IEP에는 메이저중의 하나인 B

P외에 듀폰등의 大石油 化学会社도 참가하고 있는데 35個 회원사의 대부분이 仲介業者이다. 암스텔담, 로테르담, 안트와프地域内에서 引渡할 수 있는 輕油가 去來의 중심이고, 계약단위는 100톤(금액으로는 4万달러정도)이다. 25센트를 최저변동폭으로 최대 9개월先의 先物까지 거래할 수 있다. 開設後 얼마되지 않아 아직 유럽지역의 製品市況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만큼 크지 않지만, 去來量은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美国의 先物市場에서 만약 9개월先까지의 去來를 채택하면, 멕시코, 베네수엘라와 같이, 現物市場에 맞추어 비교적 매분기마다 原油價格을 조정하는 産油国에서도 美国先物市場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로테르담등의 現物市場은 폐쇄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추정되는 去來量도 5千배럴에서 2,3百萬배럴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의 去來는 아니고, 仲介業者間의 價格決定뿐인 것도 많다. 仲介業者間의 價格을 石油專門誌 프랏츠오일그램이 종합하여 그것이 現物價格으로 報導되고 있다.

美国의 先物市場의 開設은 최초로 原油先物價格을 설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産油国·消費国 모두가 價格을 契約변경의 指標로 한 다든가, 生産水準 재조정의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그 만큼 美国은 물론이고 各國의 石油關係者가 이 先物市場開設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